“K-불교 원더풀”…세계 청소년 韓불교에 빠지다

금산사, 선운사 등 호남 사찰들
템플스테이 영외체험 인기몰이
폭염에 일정 바꿔 물놀이 제공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호응↑
탑사엔 지역문화 탐방으로 찾아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


부안 내소사에서 문화체험 중인 스카우트 대원들.


고창 선운사에서 대원들이 해먹 명상을 하고 있다.

전북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영외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됐던 호남권 사찰들의 템플스테이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는 폭염 속 단비가 됐다.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을 개방해 대원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했다.

금산사(주지 일원)는 8월 1일부터 7일 조기 철수 전까지 매일 320명씩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회기간 중 총 250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했다.

금산사 영외활동 프로그램은 금산사의 역사와 국보 미륵전에 대한 안내, LED 연꽃 등 만들기, 붓글씨로 한글 소원지 쓰기, 미륵전을 배경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계곡 물놀이로 구성됐다.

이중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계곡물놀이로 폭염 속에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대원들에게 큰 활력소가 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계곡 트레킹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원들이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프로그램을 계곡 물놀이로 변경됐다.

금산사 앞 계곡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계곡 물놀이 프로그램은 물놀이를 하며 스카우트 대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산사에서는 시원한 수박을 제공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대원과 응급구조요원들을 대기시켜 놓았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도 이번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고 직접 한글 소원지쓰기 행사장에 나와 스카우트 대원들을 지도했다.

또한 금산사는 SNS를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반 피서객들의 금산사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전북지역의 주요사찰들이 불교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잠시나마 계곡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앨던(Aldan. 17세) 대원은 “날씨가 너무 더워 우리는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며 “시원한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다른 대원들도 금산사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8월 1일부터 영외체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외체험활동 첫날에만 오스트리아, 태국, 폴란드, 에스와티니, 인도네시아, 독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탈리아 등 56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했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사찰 안내에 이어 성보박물관에서 다도명상 체험, 범종, 운판을 타종하는 사물체험, 인경체험, 한옥 건축체험, 불교체험관에서 불교문화 관람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극락교 건너 은행나무 숲에서는 황토길 걷기, 해먹 명상, K-POP 댄스, 외줄타기, 집라인, 그네타기 등의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선운사 영외체험활동에 참가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처음 접해보는 한국의 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다도명상의 경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준비한 다식과 떡을 남김없이 먹으며 연신 엄지를 치켜들었다. 전각을 바라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불교건축에 대해 질문을 하며 관심을 표하는 대원들도 눈에 띄었다.

은행나무 숲에서 진행된 집라인, 외줄타기등 외부활동에서는 환호성과 웃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K-POP 댄스 활동에서는 다함께 춤을 추며 각국 청소년들의 숨을 끼를 발산하기도 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8월 1일부터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내소사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찰안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합장주 만들기, 바디체험 요가, 소원지 쓰기, 한국전통놀이 체험, 불교예절 등을 진행했다. 이중 전통놀이 체험을 제외하면 모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서 진행돼 폭염으로 인해 지쳐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했다.

특히 참가자들 대부분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모두 영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배치해 통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고 보조 진행자들도 템플스테이 담당자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대원들의 체험을 도왔다.

전남대에서 영어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나희정 씨는 전남대 영문과 교수인 미국인 마크 교수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남편이 영어와 불어가 능통해 부부가 재능기부형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나희정 씨는 “합장주 만들기 프로그램 중 모주에 대해 설명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느냐고 물어온 몰디브 출신 대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이번 스카우트 대회의 참가자들중 유럽출신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소사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어 참가했다”고 말했다.

지역 탐방 프로그램으로 사찰 문화체험이 이뤄진 곳도 있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에는 개막부터 초기 철수 전까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매일 방문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마이산 탑사에 도착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마이산의 독특한 모습에 놀라고 탑사의 돌탑 모습에 ‘원더풀!’ 을 연발했다. 마이산 탑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수많은 돌탑을 작은 체구의 이갑룡 거사가 직접 쌓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과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폭염 속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시원한 얼음생수와 간식을 제공했으며, 마이산 탑사를 방문한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마이산 탐방로가 그려진 지도 손수건을 선물로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잼버리 사상 첫 수계법회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
8월 6일 수계법회 봉행

각국 200여 스카우트 대원
“불자로 살겠다” 서원 세워


불교스카우트연맹은 8월 6일 새만금 잼버리 법당에서 잼버리 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증을 받고 기념촬영 중인 대원들.

전북 부안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세계 각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열렸다.

불교스카우트 연맹(총재 성행)은 8월 6일 잼버리 대회 종교행사일을 맞아 잼버리 법당 옆 종교활동장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행된 수계법회는 103년 세계잼버리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다.

한국불교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수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날 수계법회는 폭염을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천수경〉 봉독에 이어 성행 스님을 계사로 스카우트 오계를 설하고 참석한 200여 대원들은 불자로서의 서원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행 스님이 “산 목숨을 사랑하라, 주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5계를 설하자 참석 청소년 대원들은 큰 소리로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연비의식은 스님들이 불이 붙은 향 반대쪽으로 연비해 대원들을 배려했고 삼보륜과 연꽃 도장을 찍어줬다. 또 수계대원들에게는 단주를 채워줬다. 이어 선운사 혜수 스님이 등단해 오계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 맞춘 법문이 이어졌다.

이날 수계법회에 동참한 이다인(한국, 18세) 대원은 “대표로 수계증을 받게 돼 기분이 남달랐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6일차를 맡아 날씨가 너무 더워 모두 지쳐가고 있을 때 쯤 법당에서 부채 만들기도 체험하고 수계법회가 열려 모두 기분이 좋아진 듯 하다. 남은 기간 활동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지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성행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약식이지만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 불교의 수계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들이 한국 불교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석해 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 햄버거 1천개를 스카우트 불교연맹 총재 성행스님에게 전달했다. 수계법회 후에는 동참한 대원들에게 전통 부채와 방석, 빵과 콜라 등 간식을 제공했다. 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연희율동단이 대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불교 무용과 댄스 공연을 펼쳐 대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템플스테이 부스, K-불교 홍보 효과 ‘톡톡’

문화사업단, 대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 운영
하루 평균 1500여 명 방문해
인기 높아 하루 500명 제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기간 중 운영한 홍보부스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국의 사찰을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화사업단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산사체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당초 폐막일인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조기 철수돼 7일까지만 운영했다.

대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이승환 마케팅 팀장, 모아라 홍보팀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찾는 대원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 체험과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몽골식 텐트 4개동을 합친 약 30평 규모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템플스테이 사진, 사찰음식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합장주 만들기와 불교전통문양 타투를 체험하는 ‘나홀로 타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는 하루 평균 1500여 스타우트 대원이 방문할 정도로 늘 북적였다는 후문이다. 영어에 능통한 봉사자들은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사찰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많은 대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방문객들도 방문했다. 특히 합장주 만들기, 불교 전통문양 타투 체험프로그램은 하루 500명으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는 무더위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3대의 에어콘을 가동해 더위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합장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칠레 출신 카밀라 대원은 “합장주 만들기가 특별한 경험이었고 합장주가 너무 예뻐서 좋았다”면서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한국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부스를 오픈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위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친절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김송이 씨는 “이런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외국인 대원들이 끊이없이 질문을 해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외국인 대원들이 템플스테이와 스님들에 대해 인기가 높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수행 방법 등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